

## 광주시 남구·서구 수돗물에서 ‘발암물질’ 검출

지난 7~8일 이물질 사태 때 나프탈렌 성분 ... 상수도본부 “노후상수도관 코팅막 가루 추정”  
광주시, 관련 정보 제공 않고 “끓인 물 마셔라” ... 지하철 공사로 유사사고 가능성 ‘노심초사’

최근 발생한 광주 수돗물 이물질 검출 사고 당시 남구·서구 일부지역에 공급됐던 수돗물에 발암가능물질인 나프탈렌이 미량 포함됐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광주시가 수돗물 이물질 사고 당시 물론 최근까지 ‘탁도(흐린 정도) 기준치 초과다. 끓인 물만 마셔달라’는 취지로만 설명했다는 점에서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화정·염주동 일원 이물질 수돗물 사고 당시 채취, 분석한 수돗물에서 나프탈렌이 미량 검출됐다. 나프탈렌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정한 발암가능물질로, 이번에 검출된 나프탈렌 성분은 노후 상수도관 내부 코팅막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프탈렌 함유 농도는 8당 3μg(마이크로그램, 100만분의 1g)으로 미량이었으나, 수차례에 걸쳐 검출됐다. 당시 분석했던 수돗물에서는 철, 아연, 구리 등 중금속도 일부 검출됐지만 나프탈렌이 검출된 것

은 심심찮게 발생하는 ‘수돗물 녹물사고’와는 겹을 달리한다는 게 광주시 설명이다. 광주시는 나프탈렌이 발암가능물질이지만 정부가 정한 ‘먹는물 수질기준 60개 항목’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적극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질 부적합 판단을 내리고서도 ‘물을 끓이면 나프탈렌이 공기 중으로 사라진다’는 이유로 시민들에게 “끓이지 않은 물은 절대 드시지 마시오”라고만 안내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구·서구 사고와 달리 지난 14일 북구 문흥·풍향동 일원에서 발생한 탁한 수돗물

에서는 나프탈렌이 검출되지 않았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미량이지만 지하철 공사 시 절대 나와선 안 되는 발암가능물질이 남구·서구 일원 이물질 수돗물 사고 당시 가정 등에 공급됐던 것은 사실”이라며 “나프탈렌이 수돗물에서 검출된 건 처음으로 (저희도) 굉장히 당황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상황이 종료된 상태”라고 말했다. 나프탈렌 함유 수돗물 공급 사고는 일단 상황이 마무리됐으나, 해당 물질이 노후 상수도관 내부를 감싼 코팅막 가루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면서 걱정이 더 커지고 있다. 20년 이상된 노후수도관 중 일부는 관 내부 코팅 성분에서 나프탈렌이 함유된 것으로 파악된데다, 이번 사고 유발의 원인인 상수도관 노화로 인한 코팅막 이탈과

함께 주변 공사장 진동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광주 상수도관 전체 길이는 3970km에 이르며, 이 가운데 20%는 20년 이상된 노후관이다. 광주에서 앞으로 5년간 지하철 공사가 진행될다는 점에서 유사 사고 재발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것이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수도관 코팅막 성분에 나프탈렌이 함유된 제품은 1980년대 일시 생산되다가 유해성 논란 등으로 생산 중단됐다. 나프탈렌이 발암가능물질로 지정된 것은 2000년대 이후로 알고 있다”며 “지하철공사 업체와 관계기관에 공사 진동을 최소화하도록 해 사고 재발을 막고,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노후 수도관을 조기 교체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한국당 황교안 대표 靑→국회 이동 단식 여야, ‘명분없다’ 비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오후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4면> 황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를 막기 위해 저는 이 순간 국민 속으로 들어가 무기한 단식투쟁을 시작한다”며 “죽기를 각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통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 등을 요구하고 관철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가기로 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께서 자신과 한 줌 정치 세력의 운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 앞으로 이어질 대한민국 미래를 놓고 결단을 내려주시길 것을 저는 단식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번 단식을 계기로 한국당에 강한 쇄신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을 쇄신하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을 받들기 위해 저에게 부여된 칼을 들겠다”며 “국민의 눈높이 이상으로 처절하게 혁신하겠다”고 밝혀 대규모 인적쇄신을 예고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망국(亡國) 정치를 분쇄하려면 반드시 대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대통합 외에는 어떤 대안도, 어떤 우회도 없다. 자유민주주의의 대승적 승리를 위해 각자의 소아(小我)를 버릴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대해 ‘명분이 없다’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사랑의 온도 100도 함께 올려주세요

나눔으로 행복한 전남 희망 2020 나눔캠페인

전남 ‘희망 2020나눔캠페인 출범 및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20일 오전 전남도청 만남의 광장에서 열렸다. 올해 전남 사랑의 온도탑 모금 목표액은 지난해와 같은 98억6100만원이다. 노동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허정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고문 등 참석자들이 사랑의 온도 올리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나주 혁신도시 일대 ‘에너지밸리 강소특구’ 지정 논의 본격화

### 과기부, 심사 착수

광주전남빛가람혁신도시 일대 ‘에너지밸리 강소연구개발특구’ (이하 강소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과학기술부는 최근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를 발족, 강소특구 지정 심사를 진행하기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기존 특구와 같은 대규모가 아닌, 비교적 좁은 면적에 집약적으로 연구개발 핵심기관과 기업을 모아 관련 사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5월 도입된 새로운 연구개발 특구 모델이다. 전남도를 비롯, 울산·충남·전북·경북·서울·경남 등 전국 7곳이 특구 지정을 요청한 상태다.

전남도는 한전을 강소특구의 기술핵심 기관으로 삼아 혁신 일반산단(기술생태계 순환지구-0.97km<sup>2</sup>),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기술사업화 핵심지구-0.41km<sup>2</sup>), 한전공대 연구소 및 클러스터(기술이전 확산지구-0.80km<sup>2</sup>) 일대를 배후공간으로 하는 2.32km<sup>2</sup>의 특구 조성 계획을 과학기술부에 제출했다.

전남도는 강소특구 내 연구개발기관들

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술이전(150건), 기술창업(100건), 연구소기업(50건), 첨단 기술기업(10건) 등의 기술 사업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를 세워놓았다. 이를 통해 500억원의 기술 사업과 매출을 올리고 5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전남도 구상이다.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는 15명의 위원들로 정책·조성분과를 꾸려 5~6개월 간 지정요건 심사, 사업화 역량 및 특화분야 적정성, 배후공간 타당성 등을 중점 검토하게 된다. 또 지역별 전담위원을 통해 대면

검토를 강화하고 사업화모델, 육성방향 및 공간활용까지 면밀하게 심사할 계획이라는 게 과기부 입장이다.

전남도는 특화분야 적정성의 경우 기술핵심기관·지역의 R&D 역량 및 특화분야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으로, 한전측이 디지털변환·에너지전환·기후변화 대응·전력망 고도화 등 특화분야별로 핵심기술을 갖추고 있는 만큼 긍정적 평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찬주 다큐 소설 ‘광주 아리랑’ ▶9면  
김희송 교수 ‘5월 진실을 찾아서’ ▶10면

사랑과 감사의 65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제17회 보성차밭빛축제**  
2019. 11. 29.(금)~2020. 1. 5.(일)  
한국차문화공원일원

**2020 보성울포해변불꽃축제**  
2019. 12. 31.~ 2020. 1. 1.